



해설 8단계 제도 개선안… 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 이양 첫 도입

“안되는 것만 빼고 전부 달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은 자치분권 강화 역행 지적
중앙정부에 남겨둬야 할 법규 등 제외 제주도 위임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며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시도한다. 현재 지방정부가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는 방식은 포지티브(positive)다. 포지티브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국가 권한 중 특정 권한을 지정해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은 이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2023년까지 7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총 5321 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권한이양 대상을 일일히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제주의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조문이 부합해지고, 일일이 조문 하나하나를 고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치 분권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네거티브는 포지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앙 정부 권한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조문이나 조항, 조례로 위임할 수 없는 법규·명령만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지사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법에 ‘특정 법률의 1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식의 특례를 넣으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게 제주도의 생각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여러 개별 법령 중 포괄적 권한 이양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을 주려왔다. 그 결과 제주도는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법제처, 2026년도 정부 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세종시·전북특별도 있고 제주는 없다

‘2026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세종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7일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2026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

르면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는 국민 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 123건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칭)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제정안 등 16건이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지원, 문화산업진흥구 지정, 청년농업인 지원 등 특례를 신설·정비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법제처 입법 계획에 제주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부미현기자

선관위 내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가상의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고 이해찬 전 총리 조문하는 김민석 총리·우원식 의사장·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제주 합동분향소 설치 도의회 의사당 로비 1층… 31일까지 추모객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의사당 9시까지 운영된다.

의사당 1층 로비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합동 분향소는 장례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했으며 2001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당사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곳 분향소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상민기자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1주일 앞으로… 민주당 6·3지방선거 후보 공모·검증 한창… 국민의힘 ‘선거기획단’ 출범

6·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같은 달 20일에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임박한 시점에

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보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전 검증을 거친 후보자만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후보 공모와 검증이 한창이다.

신청서부터 교육 이수 여부, 범죄 이력, 정당 및 사회 활동 경력, 부동산 및 자산 내역 등 제출 서류 항목만 19개에 달한다.

반면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

은 선거인 전 30일로 5월 4일까지이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경우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 초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이며 도내에선 유일하게 지사 후보로 확정된 진보당 김명호 후보도 바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오는 29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고의숙 교육의원은 당분간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반면 정종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송문석 전 서귀중양여중 교장은 예비후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국회의원의 출마 시 사퇴시한은 선거인 전 30일로 5월 4일까지이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위영석기자

全州李氏大同宗約院濟州特別自治道支院

정기총회

正基總會

회망찬 丙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 제위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도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제주특별자치도지원 정기총회와 종친가족들과의 신년하례를 갖고자 하오니, 종친간의 우애를 다지고 덕담을 나누는 정겨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 일 시 : 2026년 2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제주시 서광로 112)

○ 참석대상 : 전주이씨 모든 종친가족

○ 회의안건 - 2025년도 사업 및 결산(안) 승인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 조선왕조 포럼 및 세계유산 탐방활동(안)

- 기타

※ 연락처 지원장 (010)2642-2942 재무이사 현숙 (010)6606-3779

사단 全州李氏大同宗約院濟州特別自治道支院長 哲憲

· 계성군파 종친회장 京成 · 효령대군파 종친회장(보성) 官佑

· 효령대군파 종친회장(의성) 昌廈 · 덕흥대원군파 종친회장 性周

· 안양군파 종친회장 白萬 · 해안군파 종친회장 承泰

· 의안대군파 종친회장 燦鏞 · 익안대군파 종친회장 重根

· 익녕군파 종친회장 承萬 · 화의군파 종친회장 浩錫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공개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자와 선별인원 : 사장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1년 단위 연임 가능)

3. 담당직무 및 직무수행요건

○ 법무·정무·인사·감사와의 담당직무

· 사장은 공사의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 책임을 질

○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제주도 및 도의회, 행정안전부 및 타 공기업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 고객(민원인),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협력업체 관련 업무 등

○ 공사의 사업·행정 관련 업무

· 도정·시책사업 및 혁신·생산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

· 정기적·정기적 활동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고객 참여를 통한 고객 서비스 실현

○ 조선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회합과 같은 회의를 주관하고 공사업무를 충돌시킬 경우 경영성과 책임을 질

○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제주도 및 도의회, 행정안전부 및 타 공기업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 고객(민원인),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협력업체 관련 업무 등

○ 공사의 사업·행정 관련 업무

· 도정·시책사업 및 혁신·생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정기적·정기적 활동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고객 참여를 통한 고객 서비스 실현

○ 조선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회합과 같은 회의를 주관하고 공사업무를 충돌시킬 경우 경영성과 책임을 질

○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제주도 및 도의회, 행정안전부 및 타 공기업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 고객(민원인),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협력업체 관련 업무 등

○ 공사의 사업·행정 관련 업무

· 도정·시책사업 및 혁신·생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정기적·정기적 활동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고객 참여를 통한 고객 서비스 실현

○ 조선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회합과 같은 회의를 주관하고 공사업무를 충돌시킬 경우 경영성과 책임을 질

○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제주도 및 도의회, 행정안전부 및 타 공기업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 고객(민원인),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협력업체 관련 업무 등

○ 공사의 사업·행정 관련 업무

· 도정·시책사업 및 혁신·생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정기적·정기적 활동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고객 참여를 통한 고객 서비스 실현

○ 조선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회합과 같은 회의를 주관하고 공사업무를 충돌시킬 경우 경영성과 책임을 질

○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제주도 및 도의회, 행정안전부 및 타 공기업 등 유관기관 관련 업무

· 고객(민원인),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협력업체 관련 업무 등

○ 공사의 사업·행정 관련 업무

· 도정·시책사업 및 혁신·생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정기적·정기적 활동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고객 참여를 통한 고객 서비스 실현

○ 조선내부관리 관련 업무